

새해 새 설계

임창규 광주국세청장

“영세기업 지원...상생세정 구현”

“국내·외의 어려운 경제여건과 복지재정 확충 등으로 세정역할이 더욱 증대되는 시기이지만 성실 납세자를 우대하고 영세납세자와 성실 중소기업들이 사업하기 편한 세정여건을 만들어 생업에 전념토록하는 납세자 중심의 ‘따뜻한 세정’을 펼치겠습니다”



중소 세무간섭 완화

향토업소 납세 담보면제

성실납세 행정력 집중

임창규 광주지방국세청장은 4일 “지역 소재 세무조사 선정비율을 축소해 수도권 기업과 실질적 형평성을 도모하고 일자리 창출사업, 성실 중소기업, 사회적 기업 등은 정기 세무조사 유예등을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최선을 다한 청장으로 기억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특히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역 납세자들에게 필요한 세정지원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중소·지역기업의 세무간섭을 대폭 완화하고 영세납세자에 대해서는 최대한 세정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뒷받침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은 이와함께 옛것을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 지역 전통주·장류·목기·도자기 제조업자 등을 전통·향토 업소로 지정해 탈루혐의가 없는 한 세무간섭 배제와 납세 담보 면제 등 사업하기 편한 세정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효율을 위

강화에 대해 임 청장은 “소득이 있고 세금을 내야 될 사람이 마땅히 내야 될 세금을 제대로 내면 재원 확보는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며 “이와 더불어 범죄를 수반한 탈세나 거짓 세금계산서 수수, 불법사채업 등 세금 납부를 하지 않고 지경제로 흘러가는 자금의 통로를 철저히 차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성실 납세가 진정한 질세”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지방 국세청의 발전방안에 대해 임 청장은 “과세당국과 납세자는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함께 발전하는 상생세정이 되어야 한다”며 “지역 경제 회복과 안정을 위해 법이 허용하는 테두리 내에서 납세자들을 최대한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임 청장은 “납세자의 목소리를 귀담아 듣고 어려움을 헤아리는 헌신적 자세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지역 납세자들로부터 ‘해야 할 일을 제대로 잘한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임 청장은 목포출신으로 목포상고와 한양대학원을 졸업했으며 목포세무서 부가세과장, 국세청 법인세과장, 조사기획과장, 중부청 납세자보호담당관 등을 지냈다.

올해 복지재원 확충 등 원활한 재정조달을 위한 국세청의 역할 /최재훈기자 lion@kwangju.co.kr /사진=최현배기자 choi@

한파에 난방비 폭탄...농가의 한숨

수입산에 밀리고 연료비 급증에 적자 허덕 채소값 고공행진...배추·당근 한달새 3배 ↑

지독한 한파로 난방비가 늘면서 비닐하우스 농작물 재배 농가의 한숨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농산물 생육 저하 현상과 함께 출하가 지연되면서 채소값도 치솟고 있다.

◇난방비 ‘폭탄’ 시설농가는 울상=강추위와 폭설 탓에 면세유와 전기 소비량이 급증하면서 난방비는 대폭 올랐지만 농산물 가격은 수입 농산물에 떠밀려 제 값도 못 받아 적자운영에 허덕이고 있기 때문이다.

3년 전 700원대였던 면세유 가격은 1200원대로 올랐고 한국전력에서도 전력 수급난 해소를 이유로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난방비 부담은 배 이상 늘었다.

영암군 미암면에서 국화를 재배하는 박명준씨는 “적정 온도를 유지해야 국화가 잘 자라는데 난방비 부담 때문에 온도를 낮추면서 국화 수확시기도 1개월 가량 늦어졌다”며 “중국, 베트남에서 저가에 들어오다보니 제 값도 못 받고 출하를 해야해 난방비조차 뽑을 수 있을 지 걱정”이라고 말했다.

했다. 박씨는 “3년 전 만 해도 면세유 30만ℓ 면 한 해를 버틸 수 있었는데 지난해부터 추위지면서 40만ℓ를 넘게 쓰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열 난방시설로 교체하는 것도 정부의 지원을 받아도 농가가 최소 1억~2억원 정도 부담해야해 적자운영 상황에서는 꿈도 꿀 수 없다”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비싼 돈을 들여 지열 난방시설로

교체한 시설하우스 농가도 어렵기는 마찬가지다.

강진에서 파프리카를 농장을 운영하는 김중운씨는 “지열을 이용해 난방을 한다해도 모터를 돌려야 하기 때문에 전기사용량이 배 이상 늘었다”며 “농업용 전기 요금도 지난해 대비 30% 가량 올라 난방비 부담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사먹기 겁나는 ‘금값’ 채소=채소값도 고공행진이다.

6일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가격정보에 따르면 광주지역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월동배추(1kg·상품) 가격은 1300원으로 1년 전 350원에 비해 271%나 폭등했으며, 가을배추(“)도 한 달 사이 43%, 일주일 사이

18% 오른 1300원에 팔렸다.

양배추(10kg·상품)도 1만5000원으로 1년 전 4600원에서 226%나 폭등했고, 1년 전 1만8400원에 거래됐던 당근(20kg·무세척)은 8만5000원으로 362%나 급등했다.

방울토마토(5kg)도 3만원으로 한 달 사이 76.5%가 올랐다.

농협중앙회 광주공판장 고성 경매사는 “지난해 여름 잇따른 태풍으로 모종심기가 늦어진데다 때 이른 한파에 흑한까지 겹치면서 생육까지 부진해 배추가격 고공행진이 장기화되고 있다”며 “당분간 배추값은 추위가 계속될 전망이어서 배추는 물론 채소류 가격이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은미기자 emlee@

새얼굴

“현장·고객·성과 중심 금융 서비스”

고태순 NH농협은행 전남본부 부행장보

“지역민과 고객에게 사랑받는 지역 대표은행으로 만들겠습니다.”

지난 4일 취임한 고태순(54) NH농협은행 전남본부 부행장보는 “현장

중심, 고객중심, 성과중심을 새 경영 방침으로 삼고 고객을 위해 최적의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은행을 만들

겠다”고 취임 포부를 밝혔다.

해남 출신 고 부행장보는 목포 덕인고와 농림대학, 연세대학원을 졸업했으며 1976년 농협중앙회에 입사한 후 농협대학 교수, 무안군지부 금융지점장, 자유시장지점장, 남대문기업금융지점장, 서울영업부장 등을 역임했다. /이은미기자 emlee@

카드 무이자 할부 중단...소비자만 피해

카드사 “마트가 수수료 부담을” vs 마트 “카드사 몫” 의견 대립만

대형마트에서 신용카드 무이자 할부 결제 서비스가 중단됐다.

4일 대형마트에 따르면 국내 주요 대형 카드사들은 지난 1일부터 고객을 상대로 제공해온 신용카드 2~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를 중단했다. 현재는 삼성카드 등 일부 카드만 할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다음달부터 중단될 예정이다.

다만 마트와 별도로 무이자 할부 서비스 계약을 맺은 일부 카드나 같은 계열사의 카드 등은 당분간 서비스를 계속할 전망이다. 이 문제는 올해부터 개정 시행된 여신전문금융업

법(여신법)에서 ‘대형가맹점은 관측 행사 비용의 50%를 초과하는 비용부담을 요구해서는 안된다’는 항목이 포함되며 불거졌다. 카드사 측은 무이자 할부 서비스 역시 가맹점의 매출 증대에 기여하는 관측의 하나이기 때문에, 여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대형마트가 절반 이상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대형마트 측은 “카드사들이 회원을 유치하기 위해 시행하는 부가 서비스의 비용을 마트에서 부담하라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맞서고 있다.

대형마트의 한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 말 카드 수수료가 조정되며 비용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이라며 “할부 서비스 비용까지 떠안을 경우 마트들이 버틸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카드사와 마트의 대립으로 애꿎은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경기 침체 탓에 무이자 할부로 결제하는 고객들 비중이 늘고 있다”며 “갑자기 서비스가 중단돼 소비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청담동 푸드마켓 광주신세계에서 만나요

프리미엄 식품관 오픈

“서울 청담동 SSG 푸드마켓, 광주신세계에서 만나요”

(주)광주신세계가 지난 4일 지하 1층 식품매장에 청담동의 SSG 푸드마켓 코너' 선보였다.

‘SSG 푸드마켓’은 지난해 7월 서울 청담동에 문을 연 프리미엄 식품관으로 신선도가 높은 고급 식재료를 판매해 높은 인기를 얻고 있다.

(주)광주신세계 ‘SSG 푸드마켓 코너’에서는 기존도 명인의 원장과 고추



장 등 장류를 비롯해 각종 프리미엄 제품을 판매하고 있으며, 가격은 1만원부터 10만원선까지 다양하다.

광주신세계 조승식 식품팀장은

“앞으로 식품매장 내 SSG 푸드마켓 코너를 확대 진행, 식문화 선도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청렴경영으로 신뢰 농협 도약”

전남 NH농협은행 결의대회

NH농협은행 전남본부(이하 전남농협은행)가 지난 4일 전남농협 대강당에서 고태순 전남본부 부행장보와 영업점 지부장, 지점장, 지역본부 직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

경영목표 달성 조기 사업추진 및 윤리경영 실천 결의대회’를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전남농협은행은 ‘사랑받는 일등 민속은행’으로 거듭나기 위해 직원들의 윤리 의식을 강화하는 등 윤리경영 정착에 힘을 쏟기로 했다.

또 ‘청렴한 농협은행·신뢰받는 농

협은행’구현에 앞장서 농업인과 고객에게 사랑받는 농협은행으로 한단계 도약할 것을 다짐했다.

고 부행장은 “윤리 기반을 갖추지 않으면 고객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지 못하는 물론 조직의 생존조차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은미기자 emlee@



TRUE PRODUCTS, REAL PEOPLE



“한내”
“당신이 좋아”
“잘 될 거야”
라는 말 대신
산에 가자고 했습니다

진실은
만나다

아웃도어의 진실-밀레

밀레 「한국명산 16좌 원정대」 모집 연출집 대장과 함께 한국명산 16좌를 오르십시오. 도전하는 자만이 산의 진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 광주/전라지역 밀레 백화점 및 대리점 또는 아래 참가 신청가능 매장에서 접수 (자세한 사항은 매점 혹은 www.millet.co.kr 참조)

·참가특전: 참여하신 모든 분께 밀레 기념품 증정 ·주최: /주관: Mtour /후원: 61광주일보사

이름번제 신청 1월 25일(금) /가야산 *일정 및 등산코스는 기상여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